**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 세 단어를 자주 혼용하곤 했다.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고맙고, 고마운 사람에겐 그만큼 내가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으니까. ‘情과 正을 행하고 살자’는 모토를 가진 나에게 저 세 단어는 정(情)의 기본이 되는 감정들이었고, 그래서 내 사람들의 곁에 있는 동안에는 나도 모르게 저 세 단어를 끊임없이 연발하곤 했다.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에게 ‘사랑해’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인 것 같다. 그 말은 연인한테나 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우정과 애정은 형태가 다른 사랑일 뿐, 관계에 따라서는 애정보다 깊은 우정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면 줄이는 게 맞는 거겠지. (여담이지만, ‘사랑해’라는 말은 슬픈 모순을 품고 있다. 말하면 말할수록 그 의미가 깊어져 가슴이 벅차오르는 단어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의미가 가벼이 받아들여져 버린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말은 ‘고마워’와 ‘미안해’로 한정되었다. 사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미안함이 고마움보다 한 단계 발전한 감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안해’는 고마움에 그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미안해하는 것’은 나의 언어습관으로 고착되었다.

가을학기 개강을 열흘 남겨두고 은막의 여름영화 촬영이 끝이 났다. KAIST 영화제작동아리, 은막의 회장 겸 이번 영화의 감독을 맡고 있는 나로서는 하나의 큰 산을 넘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직책이 직책인지라, 또 아끼는 동기들의 마지막 영화이자 후배들의 첫 영화였으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임했다. 촬영은 예상 일정보다도 이틀 일찍 끝났고, 모든 부원이 합을 맞추며 즐겁게 찍었으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왁자지껄한 뒷풀이가 끝나고, 소수의 사람들이 동방에 남아 조금 진솔한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촬영장에서의 이런저런 추억들을 공유하며 웃다가,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조금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바로 ‘자존감이 낮다’는 말이었다.

친구들이 지적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 애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잘 못한다는 점. 둘째, 화를 내도 괜찮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쓸데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점. 결국 다 비슷한 얘기기는 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마냥 자꾸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다소 만만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나는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이 스스로를 ‘싫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부족한 점이 분명 많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해본 적이 없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다. 자존심도 꽤 센 편이라 누군가에게 절대 만만해보이는 사람은 되지 않고자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막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됐다. 친구들이 지적한 것들은 전부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음, 변명을 하자면 나의 모든 태도는 그 대상이 은막인(은막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끼는 친구들인데,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감히 내가 함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간혹 나를 실망시키고, 화나게도 하지만 내가 화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여러모로 부족한 나를 감독자리에 앉혀 놓고 한여름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 친구들이 나를 질책하거나 비난하고자 ‘자존감이 낮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카리스마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했던 말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진짜 마음에 와닿은 말은, 내가 결국 눈물을 쏟으며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었던 말은 이것이었다.

“형이 남들을 아끼는 만큼만 형 자신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자존감이 갖춰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이 넘쳐서, 사과를 하더라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라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자기애가 큰 사람이 아니었다. ‘미안해’, ‘미안해’. 습관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동안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작아져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고 있었다. 사랑하며 사랑받는 동안에도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외로워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내게 준 마음만큼 나도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으니까. 굳이 나를 乙로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 사랑스러운 녀석들에게, 이 고마운 친구들에게 미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을 주기로 했다.

아, 나의 사람들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